

연예뉴스 스테이션

김원준, 14살 연하의 김사와 4월16일 결혼



가수 김원준(43·사진)이 4월 16일 오후 3시 서울 대검찰청에서 14살 연하의 김사와 결혼한다. 소속사 에이엔터테인먼트는 8일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올해 초 서로의 사랑에 확신을 갖고 결혼을 결심했다. 양가 부모의 바람대로 예식은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예비신부는 건국대학교 로스쿨 출신으로 지난해 검사에 임용됐다. 김원준은 SNS에 “늘 아껴주고 힘이 돼 준 팬들에게 감사하다. 행복하게 사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1992년 데뷔한 김원준은 ‘모두 잠든 후에’, ‘쇼’ 등 히트곡으로 인기를 얻었다. 연기자로 활동 영역을 넓혀 지난해 MBC 드라마 ‘딱 너 같은 딸’ 등에 출연했다.

유지태·김효진 부부, 아프리카 학교짓기 캠페인

배우 유지태, 김효진 부부가 아프리카에서 학교 짓기 캠페인을 시작한다. 이들 부부는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 월드비전이 아프리카 니제르에 초등학교를 짓기 위한 후원금을 모으는 ‘꿈꾸는 학교’ 캠페인에 동참한다. 1억4000만원 모금을 목표로 월드비전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기 방식으로 후원할 수 있다. 유지태, 김효진 부부는 2011년 결혼식 축의금을 월드비전에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미얀마 등 세계 곳곳에서 학교 짓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월드비전 홍보대사도 맡고 있다.

tvN ‘신서유기2’ 4월 중국에서 추가 촬영



강호동(사진)과 나영석 PD가 함께하는 tvN 예능프로그램 ‘신서유기2’가 4월 중국에서 추가 촬영을 진행한다. 2월 중순 중국 쓰촨성 정주에서 진행한 1차 촬영에 이어 두 번째다. 강호동과 이수근, 은지연, 안재현까지 시즌2 출연진이 그대로 참여한다. tvN은 8일 “‘신서유기’는 웹 전용 콘텐츠 성격에 맞게 TV가 아닌 웹으로 가장 먼저 공개할 계획”이라며 “인터넷에 접근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TV로 재방송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시즌1을 방송한 ‘신서유기’는 국내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중국 포털 Q를 통해 공개돼 인기를 얻었다.

드라마 ‘압구정 백야’, 방통위 제재 관련 항소

MBC가 드라마 ‘압구정 백야’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자 다시 항소했다. MBC는 2월11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8일 확인됐다. 사건은 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송됐다. 임신한 작가가 집필해 지난해 5월까지 방송한 ‘압구정 백야’는 딸이 친모에게 복수하기 위해 재혼한 어머니의 의붓아들 유혹해 매느리가 되는 등 ‘막장’ 내용으로 비난 받았다. 주인공들의 황당한 죽음이 이어지는 내용 역시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4월 ‘드라마 관계자 징계 처분’을 내렸다.

주한 미국대사, ‘인천상륙작전’ 촬영 현장 방문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이정재 주연의 영화 ‘인천상륙작전’의 촬영 현장을 방문했다. 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는 8일 “리퍼트 대사가 3·1절에 맞춰 경기도 남양주 세트장을 비공식 방문해 두 시간 동안 머물면서 감독과 배우, 제작진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리퍼트 대사가 한국 영화 촬영장에 방문하기는 처음이다. ‘인천상륙작전’은 한국전쟁 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을 중심으로 특수 첩보작전을 수행한 첩보 부대원 8명에 대한 이야기다. 맥아더 장군 역으로 할리우드 배우 리암 니슨(사진)이 출연했다.

음악 랭킹

2월 29일~3월 6일, 자료: 멜론

순위	곡명	아티스트
1	너 is wonderful	마미루
2	시간을 달려서	여진규
3	Everytime	첸, 펀치
4	어디에도	엘시 더 맥스
5	ALWASY	윤미래
6	너는 나 나 너	지코
7	Rain	태연
8	이 사랑	다비치
9	야 하고 싶어 (Ft. 시우민)	지민
10	잊어버리지마 (Ft. 태연)	Crush



KBS 2TV ‘태양의 후예’



tvN 드라마 ‘시그널’

SBS가 ‘태양의 후예’·‘시그널’ 놓친 이유는?

PPL 등 제작지원 어렵다 판단 편성 불발 장르드라마 시청률·광고수익 저조 우려

‘돈’ 쫓다 지붕 쳐다본 꼴이 됐다. 케이블채널 tvN 드라마 ‘시그널’과 KBS 2TV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고공행진을 펼칠수록 SBS의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다. 두 드라마가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채널을 대표하며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지만, 공교롭게도 SBS와 편성을 논의하다 방송일까지 확정된 상태에서 “아예 없던 일”이 됐기 때문이다. 한 번도 아니고 두 편의 ‘대박’을 눈앞에서 놓친 SBS의 ‘안타까운’ 사정은 무엇일까.

●“PPL 등 제작지원 어려워 NO!”

사실 ‘태양의 후예’가 이렇게까지 인기를 얻을 줄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2014년 SBS는 ‘상속자들’의 성공 이후 김은숙 작가의 신작 ‘태양의 후예’를 2015년 6월 방송을 목표로 준비했다. 하지만 제작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다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편성은 불발되고 말았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SBS는 ‘스타작가’로 꼽히는 김은숙 작가의 신작이라 해도, 재난과 전쟁을 주요 소재로 삼은 드라마라는 점에서 반신반의했다.

현재 송중기가 연기하고 있는 남주인공이 군인 역할이라는 점도 SBS의 결단을 막았다. 상당수 장면에서 군복을 입고 등장해야 한다는 점은 다양한 의상을 험한 받을 수 있는 ‘장점’을 반감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군인과 의사 등 극중 인물들이 해외에 파병되거나 파견되는 설정상 공간적 배경 역시 한정적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자동차 등 PPL(간접광고)을 비롯한 기업의 제작지원을 원활하게 받

지 못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이 같은 설정과 배경에 따라 해외 로케가 전체 분량의 70% 이상을 차지해 제작비가 막대하게 투입된다는 점도 SBS가 그 행보를 저지하게 한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돈이 전부 아니다’

‘시그널’도 같은 이유였다. 장르드라마가 화제성은 높지만 그에 비해 시청률이 낮은 이전의 사례들을 참조할 수밖에 없었다. 시청률이 광고 판매로까지 연결되는 상황에 저조한 시청률은 방송사에 큰 수익을 안겨 주지 않는다는 점을 다양한 의상을 험한 받을 수 있는 ‘장점’을 반감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1980년대와 현재 시점을 넘나드는 이야기의 설정상 PPL이나 제작지원 역시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는 그동안 김은숙 작가와 ‘시그널’의 대본을 집필 중인 김은희 작가의 드라마를 각

각 9편, 3편을 방송하며 ‘쏟아낸 재미’를 봤지만 이번 신작에 대해서는 결국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편성 무산’은 방송사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방송사 입장에서도 수익을 따지지 않은 채 무조건 편성을 내줄 수도 없다. 흥행이 되면 광고 수익은 물론 거시 파생되는 부가수익까지 고려해 계산기를 두드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오로지 상업성만 쫓다보면 ‘막장’으로 불리는 질 낮은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우려도 있다고 방송사 관계자들은 말한다.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더욱이 중국 등 해외시장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다양성은 필수요인이 된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영화 ‘엽기적인 그녀2’ 한중일 흥행 카운트다운

4월22일 중국 공개·5월5일 국내 개봉

영화 ‘엽기적인 그녀2’가 한류를 만들어 낸 원조 ‘케이무비’다운 관심 속에 한국과 중국, 일본 관객을 함께 공략한다. 최근 한중 영화제작자간 교류와 자본협업이 늘어나는 분위기 아래 15년 전 개봉한 1편의 성공이 남긴 프리미엄까지 더해져 주목받고 있다.

차태현과 빅토리아가 주연한 ‘엽기적인 그녀2’(감독 조근식·제작 신씨네·사진)가 4월22일 중국에서 먼저 공개된 뒤 5월5일 국내에서도 개봉한다. 일본 개봉 역시 추진 중이다. 제작사 관계자는 8일 “일본 측 배급사 선정 등 개봉에 필요한 여러 논의를 진행하는 단계”라며 “시나리오 규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신중하게 상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엽기적인 그녀’는 2001년 차태현 전지현이 출연해 국내에서 488만 명(배급사 집계)을 모은 흥행작이다. 비슷한 시기 일본과 홍콩에서 극장 개봉해 크게 히트했고, 중국에서는 DVD로 공개돼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제작사는 “당시 중국에서 불법

유통된 DVD로 영화를 본 관객 수만 1억 명 이상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1편의 인기는 쉽게 식지 않았다. 2008년에는 일본 TBS를 통해 드라마로도 제작됐다. 한류가 정착되지 못한 시기에 중국과 일본에 소개되면서 한류의 초석을 다진 킬러콘텐츠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후속편 제작에도 1편이 쌓은 인기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중국의 투자로 제작 규모를 키운 ‘엽기적인 그녀2’는 출연진 구성에서부터 한중일 관객을 겨냥했다. 차태현을 중심으로 그룹 에프엑스의 중국인 멤버 빅토리아, 일본의 인기 여배우 후지이 미나가 포진했다. 주인공 차태현은 물론 제작진이 그대로 참여했고, 1편의 결말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로 꾸며 시리즈의 연속성을 갖췄다. ‘엽기적인 그녀2’는 중국 개봉을 앞두고 최근 베이징에서 연 제작보고회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관심을 받았다. 주연 배우들이 빠짐없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중국 영화전문사이트 시엔칸을 통해 생중계까지 됐다.

이해리 기자 goil1024@donga.com

‘치즈인더트랩’ 중국어 제목은 ‘내락함정’

중국어 풀이 ‘치즈’-‘내락’-‘트랩’-‘함정’ 현지 정서 맞춰 변경해 방송하기로 결정

케이블채널 tvN 드라마 ‘치즈인더트랩’(사진)이 5월 중국 동영상사이트 요우쿠에서 공개되는 가운데, ‘내락함정’(나이라오 시엔징)이라는 제목으로 바뀌어 현지 시청자들과 만난다. 한국에서는 원작 웹툰과 동명으로 드라마화됐지만, 외국어 표기에 개방적이지 않은 중국이 자극 정서에 맞춰 변경해 방송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드라마가 중국에 방송되기 위해서는 현지 방송담당 정책부서인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약 2개월에 걸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는 드라마 내용뿐만 아니라 제목도 절차에 포함된다. 이로 인해 원제 ‘Cheese In The Trap’의 영어가 중국어로 풀이되면서 ‘치즈’는 ‘내락’, ‘인 더 트랩’은 함정, 속임수의 뜻을 지닌 ‘함정’의 합성어로 변경됐다.

국내 제작사는 중국에 판권을 판매한 후에는 제목을 바꾸는 것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다. 특히 중국은 정부에서 직접 나서 관리



하기 때문에 한국 제작사나 방송사 측에서도 현지 상황에 맞춰 충분한 합의가 선행된다면 수용하려는 모습이다. 앞서 SBS 드라마 ‘찬란한 유산’(2009)이 2010년 중국 후난위성TV에서 방송할 당시 ‘아직찬란유산’(나의 찬란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방송된 바 있다. 드라마 제작사의 한 관계자는 8일 “중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드라마가 방송하기까지의 과정이 까다롭다”며 “드라마의 색깔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한 중국 측의 입장을 따르려고 한다”고 말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편집 | 정은은 기자 sadzoo@donga.com

MBC-SBS 음악예능 신경전…난감한 가수들

■ 취재파일

“방송 한 번 잘못 나갔다가, 다른 방송사에선 출연금지될 분위기예요. 방송사들 신경전에 가수들만 죽어나게 생겼어요.”

최근 만난 한 가수 매니저는 ‘음악예능’ 이야기로 난처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지난 설명절 파일럿으로 방송됐던 MBC ‘듀엣가요제’와 SBS ‘일요일이 좋다-판타스틱 듀오’ ‘보컬전쟁 : 신의 목소리’가 모두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되면서 두 방송사 사이에 날선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수와 일반인의 듀엣 대결’ 포맷의 ‘듀엣가요제’와 ‘판타스틱 듀오’간 신경전은 가수 측 입장을 더욱 난처하게 만든다.

가창력과 스타성을 겸비한 가수는 한정돼 있는데, 방송사들이 서로 출연시키려 경쟁하다 보면, 가수의 선택에 따라 서운함을 느끼는 방송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같은 포맷의 두 프로에 모두 나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어느 한 곳에만 출연했다면 다른 쪽에 미운털 박힐 것 같고, 모두 거절하면 방송사와 등지가 될까 두려운 상황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질 지경이 된 것이다.

‘듀엣가요제’는 작년 추석에 먼저 파일럿 방송했다. 이번 설 연휴 다시 한 번 파일럿을 거쳐 정규 편성됐다. SBS ‘판타스틱 듀오’는 설특집 파일럿 후 곧바로 정규 편성됐다. MBC 측은 ‘판타스틱 듀오’가 ‘듀엣가요제’ 포맷을 그대로 따라했고, 작기도 데려갔으며 “상도어가 아니다”며 불쾌함을 보인다. 그러나 SBS 측은 “정규편성은 우리가 먼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MBC 측은 또 ‘복면가왕’과 비슷한 시간대에 ‘판타스틱 듀오’가 편성됐다는 사실도 못마땅한 일이다. ‘판타스틱 듀오’를 향한 MBC의 험악한 분위기 때문에 가수 측에선 “처신 잘못했다간 큰일 나겠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몇몇 가수들은 ‘고래싸움’을 피하기 위해, 정중히 출연을 거절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음악예능이나 요리예능처럼 음악예능도 범람의 시대를 맞게 됐다. 예능의 쏠림현상은 또 여러 부작용이 수반될 것이다. 방송사들이 자초한 쏠림현상에 애꿎은 출연자들만 후유증을 감당하게 됐다. 방송사는 출연자들을 욕할 것이 아니라, 동반자로서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출연자 섭외에만 목매는 것이 아니라 ‘디테일’로 승부해야 할 것이다.

김원경 기자 gymmy@donga.com